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획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여성고용 상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Ⅲ)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여성고용 상황 발표해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0년 3월 5일

보도 날짜 : 2010년 3월 8일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ri2008@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

(연락처: 3156-7129

이메일: pbs0113@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201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Ⅲ):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의 2009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여성고용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여성고용 상황

과제책임자: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복순 · 권혜자 · 김원정

□ 지난 20년 여성노동시장의 명암

-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었던 지난 20여 년간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14,979천명(1987년)에서 20,273천명(2008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5.0%(1주 기준)에서 49.9%로 4.9% 포인트 상승하였음.

※ 1주 기준은 '지난 1주 동안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가?'와 같이 경제활동 상태 조사를 위한 참고기간을 의미함.(통계청은 1주, 4주기준으로 통계생산).

- 지난 20년 동안 임신 출산 연령대인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0%(1987년)에 그쳤으나, 2008년 현재 임신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2%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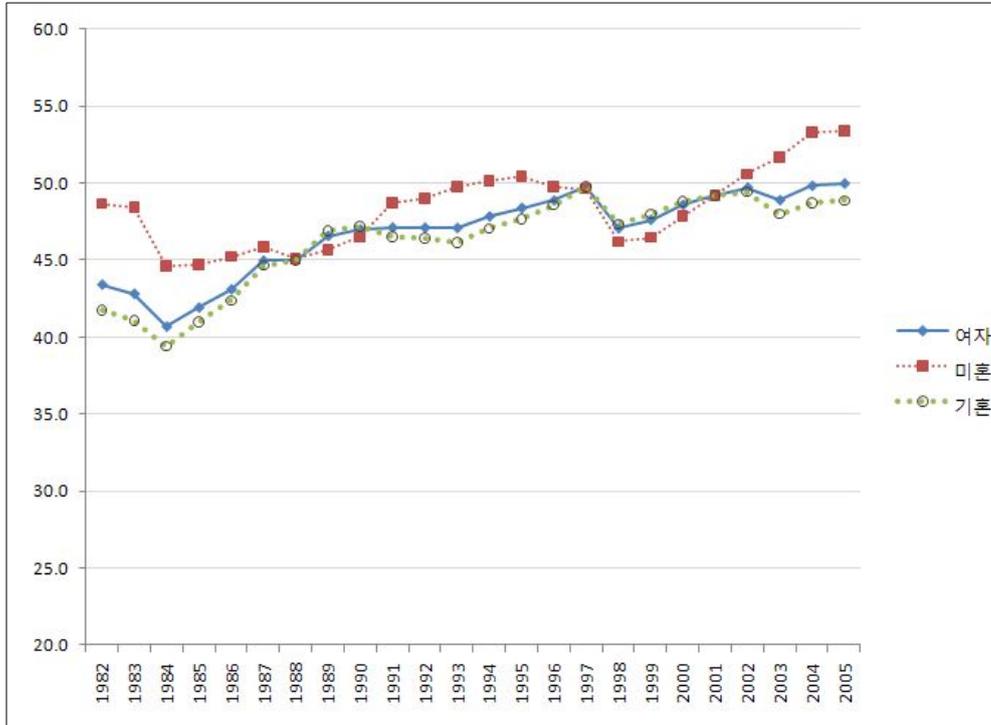
- 상용고 남성 대비 상용고 여성의 임금격차는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45.3('85년)에서 64.2('08년)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985년 48.2%에서 2008년 69.6%로 크게 상승함. 또한 상용고에서는 고임금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여 년간 산업구조의 변화, 경기 변동, 노사관계의 변화 등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모두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효과로 볼 수는 없음.
- 그러한 법·제도가 지난 20여 년간 고용상 성차별을 완화하고 성차별 의식을 바꾸는 데 기여함. 특히 사무관리직이나 전문가 직종에서 여성 근속년수의 증가, 여성 고임금 근로자의 증가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성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의 지속, 여성 비정규직의 확대, 성별 직업분리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고용의 변화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첫 해인 1988년 45.0%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 2005년 처음으로 50.0%(1주 기준)를 넘어섰음. 그러나 '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체상태로 보였으며, 현재까지 2009년 49.0%(1주 기준)로 1990년대 중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여성고용은 1980년대 후반에 크게 성장하였으나 90년대 초반부터 정체상태에 이름. 80년대 후반의 시점은 3저 호황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의 증가추세와 함께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수반되었던 시기였음.

[그림 1] 여성의 결혼여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호;

□ 성별 임금상승률과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 성별 임금상승률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성별 총 임금격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0여 년간 여성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성별 임금격차는 꾸준히 감소해왔음(<표 2> 참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남성 상용고 임금을 100.0으로 볼 때 여성 상용고의 임금수준은 1980년 40.1%에서 2008년 현재 64.2%까지 상승함으로써 약 24.1%p의 성별 격차 감소가 존재함. (연도별 수치는 <부표> 참조).

- 그러나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의 감소추세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가파르게 나타난 현상이며, 2000년 이후에는 감소추세가 뚜렷한 정체현상을 보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성별 임금격차는 5년마다 약 5-6%p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8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

<표 2> 성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의 추이(월평균임금 기준)

(단위: 천원, %)

	월평균 임금				성별 임금격차	
	전산업 남성	금융업 남성	전산업 여성	금융업 여성	전산업	금융업
1980	189	309	76	137	40.1	44.4
1985	345	641	155	302	45.3	47.2
1990	658	1,110	349	565	52.9	50.9
1995	1,227	1,881	723	1,118	59.0	57.4
2000	1,706	2,816	1,096	1,557	64.2	55.3
2005	2,450	4,232	1,583	2,433	64.6	57.5
2006	2,599	4,489	1,687	2,567	64.9	57.2
2007	2,731	4,608	1,742	2,727	63.8	59.2
2008	2,888	5,029	1,855	2,875	64.2	57.2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호.

<부표> 성별 월평균임금 수준과 성별 임금격차(월평균임금 기준)

(단위: 천원, %)

	월평균 임금				성별 임금격차	
	전산업 남성	금융업 남성	전산업 여성	금융업 여성	전산업	금융업
1980	189	309	76	137	40.1	44.4
1990	658	1,110	349	565	52.9	50.9
1991	779	1,211	421	636	54.0	52.5
1992	921	1,393	496	743	53.8	53.3
1993	992	1,508	547	847	55.1	56.2
1994	1,076	1,610	616	948	57.2	58.9
1995	1,227	1,881	723	1,118	59.0	59.4
1996	1,388	2,072	838	1,224	60.3	59.1
1997	1,510	2,203	938	1,367	62.1	62.1
1998	1,548	2,242	970	1,371	62.6	61.2
1999	1,553	2,330	996	1,417	64.1	60.8
2000	1,706	2,816	1,096	1,557	64.2	55.3
2001	1,823	2,994	1,175	1,683	64.5	56.2
2002	1,957	3,275	1,250	1,856	63.9	56.7
2003	2,141	3,719	1,369	2,058	63.9	55.4
2004	2,288	4,059	1,469	2,279	64.2	56.1
2005	2,450	4,232	1,583	2,433	64.6	57.5
2006	2,599	4,489	1,687	2,567	64.9	57.2
2007	2,731	4,608	1,742	2,727	63.8	59.2
2008	2,888	5,029	1,855	2,875	64.2	57.2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